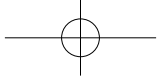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포장애인이야학 소식지

자유로운 삶, 살 맛 나는 세상, 시설 밖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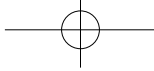
목 차



인사말	03
하반기 김포센터 활동보고	04
2학기 김포장애인야학 활동보고	05
센터안내	06
장애인야학 수업안내	07
동료상담이란 [김선영]	08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장민경]	09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실습을 마치며 [임소영]	10
다있어 나와 [김희선]	11,12
자립, 자유롭고 편안한 안식 [정승배]	13
제5회 김포장애인인권영화제 [문윤정]	14
초인 [임동재]	15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개선방안 [이도훈]	16,17
김포장애인야학이 임대료를 모금하는 이유 [장진우]	18,19
김포장애인야학 학생들의 시 [김희선][이건창]	20
후원해주신 분들	21
후원안내	22
활동지원사 이용인을 모집합니다.	23

자유로운 삶, 살 맛나는 세상, 시설 밖으로!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포장애인야학 소식지 <제7호, 2019년 겨울>

발행처 :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포시지부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장애인야학
지 원 : 보건복지부, 경기도, 김포시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겸 김포장애인야학 교장 김진수입니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탈시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센터입니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시설이 있는 곳이고, 김포에도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김포시 양촌에 있는 베데스다 요양원(현 향유의집)에서 20년 젊음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고 있다가 시설 비리가 있어서 비리를 고발하고, 비리를 척결하며 2008년에 시설에서 8명이 무조건 보따리를 싸 들고 거리로 나온 일명 석암 비대위에 한 명인 당사자입니다.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면서 살다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모두같이 논의 한 결과 김포시 사우동에 센터를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초창기에 무조건 돈도 없는데 조그마한 컨테이너에 깃발을 꽂고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매 순간이 고생길이었습니다.

센터 운영비도 못 받고,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센터에 있다가 김포시청 복지과에 왔다 갔다 하고, 지금처럼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버스 종점에 가서 리프트 점검도 많이 했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앞일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투쟁을 하면 시간도 잘 가고 걱정도 없어지고 보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때 활동가들이 무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고생들을 거쳐 현재는 김포시 사우동 밀레니엄프라자에 둥지를 잡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탈 시설한 장애인들이 공부를 하지 못해 평생 한이 되어 센터 부설로 야학을 만들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는 삶의 질을 가르치며 자부담으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열악한 지원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며 센터와 야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포장애인야학은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생활을 하며 박탈당한 배움의 기회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와 야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김진수 올림

2019년 하반기 김포센터 활동보고



탈시설 자립생활운동가故황정용 동지 49재 | 2019년 08월 30일



제 5회 김포 장애인 인권 영화제 "사다리 잇다" | 2019년 09월 22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2020년 예산쟁취 1박2일 전국결의대회 | 2019년 11월 15일~16일



장애인 동료상담가 2차 보수교육 | 2019년 11월 27일



자립생활 체험홈 입주자 인권교육 | 2019년 12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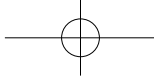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년회 | 2019년 12월 23일



보치아 자조모임 "WARA"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 오후 3시30분~5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 "중증장애인 일자리 취업 상담"



2019년 2학기 김포장애인야학 활동보고

김포장애인야학은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김포지역 성인장애인과 좌충우돌하면서 즐겁게 수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초문해교육

발달장애인의 사회와의 소통 지원



학력보완교육

문자와 숫자를 읽고 쓰는 능력 함양과
학력취득을 통한 자아성취감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문화예술교육

장애성인이 지닌 다양한 교육적 호기심 충족,
개인별 취미와 특성 개발



체험 및 견학 등

미술현장학습, 자치활동, 체험활동 등
학생 자치 민주주의 실현과 학생들의 사회 견문 향상

국립특수교육원 연구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도별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시범운영을 통한
일반화 모델 개발 연구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 안내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제반 사회 영역의 장벽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학대·차별을 예방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별자립지원

장애인 동료상담(Peer counseling)은 장애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개별자립생활지원과 집단자립생활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립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익옹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며 겪는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에 대응하고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구축활동, 모니터링, 권익옹호 활동가 양성,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자립지원(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자립)을 원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의 일정 기간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합니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자립생활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택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기회와 경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문제 혹은 현실을 알려내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비장애인의 인식 전환이 되는 장으로서, 서로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김포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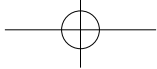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신체, 가사, 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지역사회에 거주 중인 미취업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전문교육을 이수한 동료지원가가 상담, 자조모임 등의 동료지원활동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김포장애인야학 수업 안내

2020년 수업은 지난 3년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필요와 욕구에 반영한 수업과 활동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필요의 영역에서는 기본적인 읽고 쓰기를 할 수 있는 의지와 욕구를 반영하여 문해교육을 강화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넓히기 위해서 자립생활에 관련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욕구 반영에서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들기, 노래 부르기 등 예술 활동을 꾸준히 하고 싶어 하고, 다양한 곳을 여행 다니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을 꾸준히 고민할 수 있는 강사진의 섭외와 자신이 스스로 기획해서 여행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다양한 시민참여, 교양수업 강화 등을 위해서 과학, 민주시민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룰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설명을 정리해 2020년에 구상하고 있는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해교육 강화, 자립생활교육, 학력보완교육
- 스스로 기획하는 소규모 여행, 수학여행
- 음악수업, 보치아 수업, 예술 현장학습
- 민주시민교육, 과학실험교육 등

야학 수업은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야학에 다니면서 시도해보고 싶거나 변경했으면 하는 것 등 야학 수업과 활동에 많은 관심과 활동을 가지고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야학 수업은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은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니 언제든지 오셔서 식사하세요!



동료상담이란?

김선영 【거북이】

동료상담은 서로 평등한 시점에서 억압돼왔던 감정을 말하면서 풀어내고 상호 간의 유사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기 신뢰 회복과 인간관계의 재구축 등의 심리적,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장애인이 성공적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동료상담은 자기 자신과 비슷한 환경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간을 동일하게 나눠 듣는 사람은 카운슬러가 되고 또 다른 한쪽은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클라이언트(말하는 사람)가 이야기를 할 때 조언이나 비판, 부정 등 카운슬러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감정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을 멈추게 해선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고 장애를 처음으로 느꼈을 때, 그때의 마음을 떠올리고 지금까지 받아온 끝없는 억압이나 슬픔, 억울함 등의 경험을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동료의 얘기를 듣는 과정을 통해 지워졌던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과거의 상처에서 탈출해 자기 옹호와 긍정적 태도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줘 자신의 인생을 열어주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동료상담을 14년째 하고는 있지만 상담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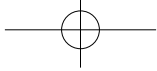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면 되는데 마음에 병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별동료상담은 일반 상담과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도 제 고민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클라이언트에 심리적인 문제까지 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동료상담가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장민경 [망고]

2019년 7월 1일,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등록제도'와 함께 31년간 장애인의 복지 지원과 관련해 수급의 유무와 수급의 양을 결정 내리는 기준으로 장애인들의 삶을 억압해 왔습니다.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정책에 큰 변화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에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선포하기 위해 여름날 우리는 조달청 앞에 모였습니다.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가 아닌 '진짜' 폐지를 위해 전국에서 활동가 1500여명과 연대 단체들이 장애등급제 진짜폐지가 적힌 분홍색 풍선을 들고 조달청을 뱅뱅 하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전국의 활동가들과 연대단체들이 모여 잠수교를 지나 서울역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8.8km에 달하는 거리였고, 야외에서 활동하기에 어려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행진 중간에 단 한명의 이탈자도 없이 잠수교를 지나 무사히 서울역에 도착했고, 우리는 서울역광장에서 더위를 식히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선언하는 '세상을 향하여[toward]손을 내밀다'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작되었지만 당장 예산의 반영은 턱 없이 부족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불안감은 여전히 장애인들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등급제의 '진짜' 폐지를 외치며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서울역광장에 모여 노래에 맞춰 춤추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이야기를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뒤 사회보장위원회 앞으로 또 다시 행진을 시작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5일 박승후 장관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정부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비법정 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시위를 한다거나 과도한 의견표출들이 있었는데"라는 발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책동 발언에 우리는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행진과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1박 노숙농성을 선포했습니다.

7월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작된, 큰 변화를 맞이한 날에 우리는 '진짜' 폐지를 외치며 투쟁 했습니다. 30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에 조달청에서 잠수교를 지나 서울역까지 그리고 또 다시 서울역에서 사회보장위원회까지 긴 거리를 행진 했습니다. 행진을 하며 경찰들과의 마찰과 온몸으로 투쟁을 하며 다친 활동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투쟁을, 결의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센터 활동가들 모두 무사히 행진을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했습니다. 반면에 투쟁의 현장에서 경찰들과 대치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상황이 늘 씁쓸합니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하고 고단한 걸까요? 험난하고 고단함에도 늘 투쟁의 현장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모든 활동가들과 저희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앞으로 장애인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의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실습을 마치며

임소영 [\[소이\]](#)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회계 담당으로 입사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2주간 실습을 다녀오게 되었다.

낯선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나 자신과 내 행동이 너무 어색하게 느껴졌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누가 질문이라도 하면 어찌지? 내가 말실수하면 어찌지?

내가 여기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꼬리를 물었다. 2주가 너무 길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나의 걱정이 무색하게 실습은 멘토 정다운 활동가님의 지도 아래 진행되었고, 정말 다행히 함께하는 실습생 동지들도 있었다.

‘함께’ 라는 말은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것 같다. 나와 실습생 동지들은 우리의 멘토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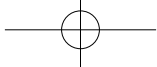
실습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활동 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긴급구제 촛불 집회를 계속 해왔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긴급구제를 권고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함께 해냈다는 것이 정말 기뻐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만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나도 힘을 보태서 열심히 투쟁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실습을 마치며 실습 기간 동안 너무 즐거웠고 많은 것을 배워간다. 특히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지 보고, 느끼고,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이제 나도 활동가라는 소속감도 생겼다. 이곳이 너무 그리울 것 같고 정다운 활동가님과 우리 실습생 동지들을 포함 많은 분들이 보고 싶을 것 같다. 2주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투쟁!





자립, 자유롭고 편안한 안식

정승배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센터 자립생활체험홈에서 3년 동안 거주하였고, 2019년 10월 4일에 퇴거하여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정승배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시설에 입소하여 오랜 기간 시설에 거주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자립생활을 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사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탈 시설 하였지만 제가 생각했던 자립생활과 차이가 있어 방향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김포센터 자립생활체험홈에 입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것이 힘들었습니다. 자립을 위한 금전관리도 힘들었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곳곳하게 버티면서 금전관리를 하며 돈을 차곡차곡 모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 사회성을 키웠습니다. 또한 자립생활체험홈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충과 갈등을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했고,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개별지원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며 그렇게 자립생활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4일 마침내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방이 생기니 너무 기분이 좋았고 내가 직접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의 집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저의 다음 목표는 저의 직업을 가져 돈을 벌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는 이미 자립이라는 어려움을 한번 극복했으며 다시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의 자립에 대한 의지와 권익옹호 활동을 통하여 한국장애인자립 생활센터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19년 자립 왕”에 제가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동안 자립을 위해 했던 것들을 인정받는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립에 대해 막연한 무서움으로 자립을 망설여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인의 마음이 자유롭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무서움을 이겨내어 자립에 대한 준비를 지금 시작하세요!



다 있어. 나와

자립생활체험홈 입주자 김희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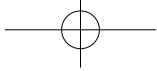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센터 여성 체험홈에서 살고 있는 김희선입니다.

저는 남양주에 있는 신애원이라는 개인운영시설에서 23년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아빠가 어느 날 저에게 ‘너 학교 가자’ 고 했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저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이 맨날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했지만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별수 없이 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학교가 아니었고,

사람들도 다 이상했어요. 거기는 처음엔 돼지우리 같았고, 화장실도 밖에 멀리 있었어요. 큰 거실에 그냥 칸막이 치고 남자방 하나, 여자방 하나 55명이 지내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자기 방 청소 하고, 한글도 모르는데 성경 외우게 하고, 12시에 점심밥 먹고 5시에 밥 먹고 9시에 자요.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는 원장이 보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하면서 혼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밤에 바지에 소변을 봤어요. 혼자 못 움직이는데 밤이니까 언니들을 불러도 다 자니까. 근데 언니들이 그걸 치워야 하니 화나서 원장님한테 일렸어요. 그래서 언니들하고 원장님이 절 각목으로 퍽퍽 때리고, 엉덩이도 때리고, 허벅지도 때려서 피가 딱 터졌어요. 나중에 목욕하는데도 피가 또 터졌어요. 그래서 병원까지 갔는데 엄마 아빠는 전혀 몰라요. 또 한 번은 시설에 사람들이 목욕시켜주러 오는데 뜨거운 물로 씻겨줘서 화상이 났어요. 그 사람들이 물을 못 맞춘 건데 내가 혼자 그 물을 발로 차서 화상 입은 거라 했어요. 내가 아니라고 했지만 원장님이 안 믿었어요. 나한테 사과도 안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맨날 원장님이 그랬어요. “넌 문제야, 문제!” 라고 했어요. 나 정말 아무것도 안했는데 문제래.. 내가 참 밤마다 울고 그랬어요. 마음이 아프고, 화나서 가슴을 쳤어요. 소리도 억!! 지르고 화나서 밥도 먹지 않으니 밥 안 먹는다고 또 혼나고..





처음 들어갈 때 모든 생활비를 내가 내야 한다고 계약서를 써요. 그게 '희선 씨 통장에 들어오는 돈 다 빼서 쓰겠다.'는 거에 사인하는 것이예요. 거기선 돈을 안줘요. 나 말고도 다 안줬어요. 그 안에서 나는 통장을 본적도 없고, 내 통장에 얼마 들어오는지도 몰랐어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어요. 그렇다고 돈을 보여 달라거나 돈을 달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눈치 보여서. 엄마, 아빠가 가끔 돈을 주고 가셔도 못 받았어요. 시설에서 나올 때 통장 받으니 맨 마지막 한 달 수급비만 들어있더라구요. 23년 동안 시설에 살았는데 단 한 푼도 못 모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는 맨날 싸워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서로 싸워요. 그럼 다음날 밥부터 한 달 동안 밥을 안줬어요. 밥 안주고 물만 줘요. 나도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뭐 했다고 물만 줬어요. 아빠, 엄마가 참으라니까 기도하면서 참았어요.

같이 시설에 살았던 언니가 먼저 나가서 자립한 다음에 나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는 5년 동안 자립을 고민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몰랐고, 두렵고, 나 혼자 어떻게 사나.. 아빠, 엄마도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래도 언젠가 꼭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자립하겠다고 결심하고 원장님,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해서 많이 싸웠어요. 나중에는 원장이 '너 빨리 나가라' 그랬어요. 나한테 질려서. 그렇게 탈시설해서 체험홈에 들어왔고, 지금은 엄마, 아빠가 한 달에 한 번씩 체험홈에 오세요. 잘 사는 거 보고 좋아하시고, 엄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나올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건 자유였어요. 모든 순간이 다 자유로워요. 내가 먹고 싶은 고기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오기 위해선 활동 지원 24시간, 아파트, 공부가 필요해요. 지금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있어. 나와' 라고 해주고 싶어요. 내가 나와서 살아보니까 더 좋고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5회 김포장애인인권영화제

문윤정 【루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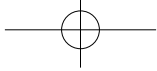
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제작한 장애인의 삶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상영함으로써 장애인에 문제 혹은 현실을 알려내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비장애인의 인식 전환이 되는 장으로서, 또한 세상과 소통하는 자리로 영화제를 매개체로 하고 있다.



김포장애인인권영화제는 2019년 제5회를 진행하였으며, 활동지원팀 코디에게 인권영화제 사업을 맡겨진 짐의 무게는 컸으나, 이 또한 즐기며 하고픈 양가감정이 생겼다. 이전과 다른 기획을 꿈꾸다가 그 꿈은 현실이 되어 좀 더 가까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픈 욕심으로 야외상영을 진행하게 되었다. 급작스럽게 발생한 태풍과 돼지 열병이 전국을 뒤흔들었고, 영화제도 역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모두의 기도와 염원으로 태풍도 잠잠하.. 보슬비도 잠시 내렸다. 공원에 운동하러 나온 주민과 시의원이 탈시설 과정 영상을 보고 눈물을 보이셨고, 바라보던 나 또한 눈물이 났다. 영상에 나오신 당사자께서 2달 전 고인이 되셨기에 마음이 쿡 내려앉았다. 날씨가 좋았다면 더 할 나위 없었겠지만, 이 또한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음에 감사했다.

장애인인권 영화감상 및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김포시 지역주민들이 장애인의 문제 및 자립생활을 이해하고 장애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 기회를 갖고, 개막식 및 폐막식 공연과 부스행사, 기념품 나누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한 공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서로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초인 (初人:처음 시작하는 사람)

임동재 [디제]

안녕하세요. 디제이 임동재입니다. 백석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김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새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김포센터로 입사하게 된 이유는 대학교 시절 전공과에서 수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공과 담당교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애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여 전공과에 입학하게 되고, 전공과를 졸업하고 나면 가정에만 소위 방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교수님의 소개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알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김포센터에서 맡게 된 업무는 활동지원사 코디네이터입니다.

활동지원 인수인계와 상근자 워크숍 등을 다녀오며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활동지원사 실습매칭, 활동지원사 서류업무, 이용인과 활동지원사 매칭 등입니다.

일을 배우며 느끼는 것은 이용인과 활동지원인을 위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 모르는 사람을 서로 연결해 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인을 통해 이용인의 질적인 삶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맡은 일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업무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으나 하나하나 배워가며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또한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전장연')로 10일간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김포센터에서 일을 배웠다면 전장연에서는 의지를 배웠습니다. 전장연은 차별과 배제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과 투쟁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로만 듣고, 동영상으로만 보던 것들을 가서 당사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보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태 걸어왔던 장애인들의 투쟁운동, 농성 등을 알아보고故 필요한 동지의 농성장을 직접 겪으며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며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실습을 통해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의지적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0일간의 실습을 마치고 다시 센터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새롭게 출근하는 기분입니다. 첫 출근 때보다 더 의지가 생기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개선방안

이도훈 【특신】

2019년 12월 전남 여수의 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과도한 업무와 실적의 압박으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적제 위주의 사업 수행은 중증장애인에게 월 65만 원의 임금에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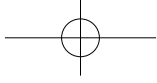
본 사업을 수행하는 동료지원가 자격 또한 중증장애인 이어야한다. 동료지원가 1명 당 매달 새로운 사람 4명을 만나서 각각 5회의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을 총 20회 진행한다는 것은 평균 월 60시간, 주 3일 근무에 중증장애인에게는 불가능한 수치에 가까웠다. 1년에 1명의 동료지원가가 만나서 실적을 쌓아야 하는 참여자 발골은 총 48명이다.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수행기관은 예산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 새로운 사람을 매달 4명을 만난다는 건 보험회사 실적도 이렇게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의 중증장애인이 자립하는 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없다.

한 예로,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인하여 중증장애인이 된 중도장애인이 있다. 청천벽력과 같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된다. 사고 이후 장애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오기까지 8년이 걸렸다. 이러한 장애인의 삶에 사회활동, 취업을 실적 위주로 한다는 것은 정부가 장애인의 삶,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장례식 행렬을 통해 실적만을 강요하는 비현실적인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의 실상을 시민에게 알렸다.



여성 일자리, 어르신 공공 일자리도 실적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에게 실적제를 요하는 이유는 뭘까?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일하는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두어야 한다.

매달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실적 위주의 초점에서 벗어나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제대로 된 상담, 자립지원을 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장애인 고용시장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취업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현 고용시장에서는 중증 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 동등한 선에서 취업 경쟁을 하고 있다. 불가능한 현실이다. 중증장애인에 맞는 취업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취업 콘텐츠는 장애인의 고민을 들어주고 자립을 지원하는 동료상담가, 장애차별을 개선하는 권익옹호활동가, 장애인권 강사, 장애 인식개선 강사 등 중증장애인의 당사자성에 맞는 사회활동 취업구조가 실현되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에게 일하는 즐거움!!”



음력설을 맞아 서울역에서故 설요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의 49재를 고향으로 가는 시민과 함께 공감하며 지내고 있다.

김포장애인야학이 임대료를 모금하는 이유

장진우 【생강】

김포장애인야학(이하 야학)에는 이건창이라는 학생이 있다. 건창씨는 뇌병변장애를 가진 성인장애인이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금은 김포 구래동에서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으며 혼자서 살아가고 있다. 건창 씨는 노래방 가는 것,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놀러나가고 싶어서 아픈 것도 숨기고 있다가 도리어 상태가 안 좋아져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 국어 수업 시간에 야학 발표회 때 선보일 시 쓰기를 했는데 “닭고기 풍당 풍당”으로 시작되는 건창 씨의 시를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발을 구르며 웃었다.

건창 씨의 시는 발표회 때 낭송되었고, 연말에는 경기도교육감 상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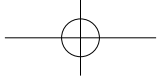
김포장애인야학 학생들은 건창 씨처럼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다가 지역사회로 자립해서 나온 분들이 대다수다. 이들에게 야학은 ‘내가 가고 싶을 때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필요한 배움을 얻어’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곳이다.

최근 야학에서는 ‘임대료 후원’을 야학 학생들, 전국장애인차별연대 SNS, 정기후원자, 김포시 관계자 등 야학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너무 자주 해서 그런지 이제는 임대료 후원 요청 글만 봐도 괜스레 주눅이 든다.

‘임대료 후원’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야학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보조금 그리고 후원금으로 운영되는데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를 제하고 나니 2개월 치 임대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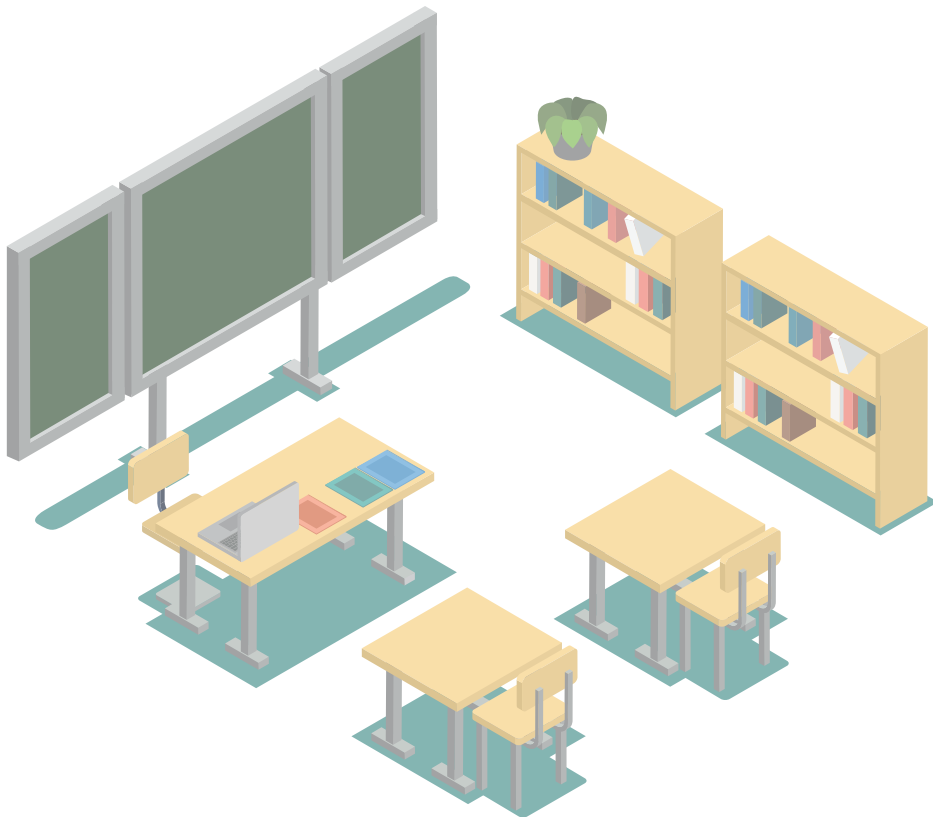
2019년 중반에 입사한 나로서는 예산을 세울 때 임대료 부족분이 눈에 훤히 드러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별 대책 없이 통과된 것에 대해 살짝 원망스러웠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부족분을 채우고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로 했다. 그 시도의 하나로 이 글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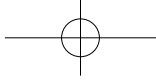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김포장애인야학 임대료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몇 가지 적어보려고 한다. 첫째, 야학은 장애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인식 부족과 장애인에게 걸맞은 교육 환경 부족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성인 장애인들에게 배움의 공간을 제공한다. 둘째, 최근 들어 인식하게 되는 것인데 야학은 이십 대가 되어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한 장애인들에 갈 곳이 되고 있다. 이들은 야학에 와서 배움도 이어나가고,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약간이지만 일자리를 연계 받기도 한다. 셋째, 야학의 존재는 좁게는 김포에서 넓게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비장애인들만 만나온 사람들에게 야학 학생들은 지하철도 타고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바다도 보러 다니면서 이 지구상에 아니 경기도 서쪽, 한때 평야로 유명했던 김포에 다양한 몸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이런 활동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다양성을 확장시켜준다는 점에서 야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야학 활동가로 있으면서, 야학에 다니는 분들과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고 싶다. 이렇게 임대료 후원을 요청하는 것은 즐겁지 않다. 이제 즐겁지 않음을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들 후원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정기후원을 해주시면 더더욱 좋다. 김포시와 경기도, 정부에도 한소리 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돈 없다고, 예산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고 말이다.





김포장애인야학 학생들의 시

[2019년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발표회 문예분야 우수상]

새

[김 희 선]

새는 펄럭펄럭 멀리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나도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다
나는 답답하다

새처럼 자유롭지 못해서...
나는 답답해서 부르짖고 싶다
‘야!! 야!! 야!!’

나는 답답해서 모든 게 싫어진다
나는 울고 싶다

내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더 슬프다
세상 모든 것이 더러운 빨래 같다
모두 서로 맞지 않아 더럽게 느껴지나 보다



닭고기 풍당풍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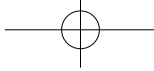
[이 건 창]

닭고기 뜯어먹고 감자 비벼먹고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먹고 싶다

장기자랑도 하고 발표도 하고
영화도 보고 피자파티하고 싶다

닭고기 튀겨 먹고 싶다
사람들 모여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다 같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 부르면 좋겠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포장애인야학에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후원금은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탈시설-자립생활 사업과 김포장애인야학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하는데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기후원회원

강민정	강수정	고봉기	공원식	곽세영	권달주	권영자	권영진	김경민	김금녀	김동림	김동윤
김명학	김선영	김성연	김영수	김영숙	김영희	김용구	김정	김정하	김진석	김진수	김태훈
김화숙	김희정	남인희	문윤정	문 혁	박경석	박김영희	박봉희	박은정	배미영	배한주	백중근
서재경	서창숙	송지현	신금희	오중영	유선숙	윤석도	윤영민	이경호	이경희	이도형	이도훈
이명란	이명아	이미예	이상희	이성도	이원옥	이은식	이재석	이재희	이현경	이형숙	이혜연
이효강	이효건	임소연	임소영	장민경	장영희	장은지	전대섭	정기영	정동은	정승배	조두성
조성남	조은별	진영이	천정민	최관	최명숙	최명희	하상윤	한규선	현정표	홍석준	

김포장애인야학 정기후원회원

고병권	곽세영	김동윤	김동림	김명수	김상현	김선영	김양희	김유미	김진두	김진석	김진수1
김진수2	김태훈	김현지	김형호	문병수	문윤정	박경석	박누리	박은정	박임당	박주원	박준호
배승천	배재현	배한주	송기운	유기훈	유지영	이경호	이도훈	이명아	이순희	이재석	이현아
임소영	임정희	양준호	염정아	장민경	장은지	장진우	전대섭	정명호	정승배	정종현	정창조
조복순	조성륜	조은별	최김재원	한규선	한명희	한혜선	주)보승스텝스		세무법인 그린		

김포장애인야학 일시후원

강위원	강희석	곽세영	금상희	기주연	김동림	김동윤	김상현	김선영	김솔	김준영	김진수
김현	문애린	문윤정	문지완	박여의	박은정	박준호	배한주	송지현	양준호	염정아	윤도경
이경희	이도훈	이동언	이명아	이슬기	이재희	이현아	임소영	임정득	임혜주	장민경	장은지
정기영	정종현	정찬길	조은별	천성호	탁신	태미화	한규선	한혜선	홍석준		
김종환(장애해방열사)			이가연(비마이너)		선원_발바닥		일산서구햇빛촌IL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물품후원

김포복지재단	- 쌀 350kg, 설 선물(김), 우영차, 잔기지떡, 생리대
비정규 노동자 쉼터 꿈잡	- 김장김치 5box, 쌀 20kg
빈곤사회연대	- 쌀 200kg
십시일반밥묵차	- 김장김치 1box
참학김포지회	- 김장김치
고양ROTC	- 과자 20 Box
노들야학	- 쌀 240kg
문윤정	- 책 50권
신금희	- 떡케익
조성춘	- 편육
이경희	- 김장김치 1box
박은정	- 김장김치 1box



후원안내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으로 변화하도록 제도 구축,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석암재단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폭로하며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뜻을 모아 시설 안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253401-04-316021

(예금주: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포시지부)

김포장애인야학은 시설에서 나와 김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등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꾸준하게 찾아오고 있어,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253401-04-316159 (예금주: 김포장애인야학)

문자후원 : #25409420 (한 통에 3,000원. 문자 보내는 번호에 위 번호를 적어주시고 발송하면 됩니다.)

김포장애인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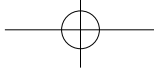
후원문자 안내

참여방법

1. 문자보내기로 들어간다
2. 보내기 번호에 “#25409420”을 입력한다.
3. 김포장애인야학에 이름 또는 응원의 한 마디를 적는다.
4. ‘보내기’를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 김포장애인야학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1건당 정보이용료 ‘3,000원’으로 표기가 됩니다.

일반 후원(일시후원), 정기후원(CMS후원), 물품 후원, 재능 후원 등 다양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활동지원사, 이용인을 모집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유급지원사의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 갈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 자격(장애인 이용자)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장애인 만 6세~65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활동지원사 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활동지원사 기본교육 이수 필요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활동지원팀 (031-991-6430, 010-2123-6430)으로 연락 혹은 방문해주세요.

차별에 저항하라!

김포센터에서는 장애인 관련 차별이 일어날 경우, 장애인 관련 차별 상담을 진행하고 당사자와 함께 차별에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사자 옹호 지원 사업' 진행 및 '장애인 차별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차별을 겪으셨다면 주저 말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용방법

장애인 차별상담전화: 1577-1330
(전국 호환번호로, 자신의 해당 지역 상담소로 바로 연결됩니다.)
직통전화(김포센터): 031-997-6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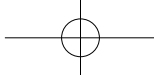
**차별 없는
누구나 평등한 김포**

www.15771330.or.kr



**1577-1330
장애인
차별상담전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www.ddask.net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부설 김포장애인인권센터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포장애인야학 소식지

자유로운 삶, 삶 맛 나는 세상, 시설 밖으로!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포장애인야학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8, 밀레니엄프라자 5층

전 화 : 031-997-6420【김포센터】, 031-991-6430【활동지원팀】, 031-991-9420【김포장애인야학】

팩 스 : 031-997-6427

홈페이지 : <http://www.gpil.co.kr>【김포센터】, <http://www.gpyh.org>【야학】

전자우편 : gimpoil0420@hanmail.net【센터】, gimpoyh0420@hanmail.net【야학】